

# 몽골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23번 학교’\*를 중심으로

알타이\*\* 몽골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기초교양학과 교수

김가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이 연구는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점검하고 ‘23번 학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행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몽골의 교육과정과 교육 관련 법령 그리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법령과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 따르면, 몽골의 외국어 교육은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러시아어는 제2외국어로써 7학년부터 시작한다. 한국어의 경우 11개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13개 학교에서는 비정규 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4,157명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외국어 심화 학교인 23번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교재는 ‘표준 한국어’이다. 학습자의 수는 463명이고, 4명의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몽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몽골의 외국어 교육과정 체제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기관과 기업 외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몽골 교육부와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몽골에서 한국어교육, 외국어 교육과정, 교사 전문성, 교육 분야의 협력

## 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관련 주요 법령, 규정을 검토하여 외국어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탐색하고, ‘23번 학교’의 한국어 교육 실행 양상을 대상으로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

\* 몽골의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명칭은 개교 순서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최초의 개설 학교는 ‘1번 학교’이다.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많은 사립학교가 개교하면서 학교 명칭 역시 개교 순서가 아닌 일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23번 학교’는 국립 학교로서 23번째로 개교했다는 의미를 가진 ‘23-dugaar(-p)’이다. 따라서 순서라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의존명사 ‘번’으로 직역하였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육의 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1990년 한-몽 수교 직후 몽골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산하의 한국학 연구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몽골에서는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세종학당도 3곳이 설립되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문 한국어 교육기관 외에도 초·중·고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2019년 기준 24개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몽골은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수행되는 대표적인 국가로 공인되면서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몽골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하는 초창기 연구를 시작으로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김명광, 2008; 권성훈, 2009; 김명권, 2011),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몽골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강남옥, 2010; Amarjargal, 2011; Batsaikhan, 2013; Enkhbold, 2014),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 연구(남수정, 2010; 김승희, 2012; 벨러러, 201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을 중심으로 각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성비락(2005)은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효시다. 현대 몽골의 외국어 교육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1990년 한·몽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후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몽골국립대학교의 외국어문화대학 한국어과,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과의 교육과정 체계 및 이수 학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강신(2007), 최기호(2007) 등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몽골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벨러러(2017)는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현지 교사 인터뷰를 종합하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 학습 자료의 문제, 교사의 전문성 문제, 학습자의 문제, 교육 시설의 문제 등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 대학의 한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연구 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황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세부 전공 단위로 세분화되어 논의가 구체화된다. 최명선(2013)은 문학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문학 교육의 성격과 위상을 검토하였고, 앵크체첵·김영란(2017)은 통·번역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가 대학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몽골의 한국어교육은 대학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93년 ‘23번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였고, 1994년에는 ‘54번 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강신, 2007: 148-149). 최근에는 경기도가 ODA 사업<sup>1</sup>의 일환으로 몽골에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면서 한국어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몽골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1,900여 명 수준이었던 한국어 스마트교실 학습 인원은 2016년 2,700여 명, 2017년 4,000여 명, 2018년 5,000여 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교실 학습 인원 5,000여 명은 초·중·고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몽골 전체 한국어 학습 인원 1만여 명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경기도 포털뉴스).

이처럼 몽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중·고 한국어교육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에 주목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체계<sup>2</sup>와 외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실제 한국어교육의

<sup>1</sup>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은 교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의 보급과 병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상명대학교와 함께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라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몽골인 교수진과 교사들이 참여해 몽골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국어 교재를 완성하였다. 표준 한국어 교재는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준별로 제작됐으며 기본교재, 교사용 지도서 등 총 24권으로 구성되었다(Tungalag, 2020: 5).

<sup>2</sup> 일반 교육학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 교육과정의 체계 안에서 교육의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재춘 외, 2010: 11).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국내 교육과정은 총론과 함께 각 과목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학년별 내용이 성취 기준과 함께 문서화하여 상세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문화된

구체적인 실행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초·중·고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체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중·고의 한국어교육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외국어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이 수행되는 ‘23번 학교’의 실제 사례를 검토하여 몽골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은 1990년 한-몽 수교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이루어졌다. 수교 직후인 1990년 5월 몽골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산하의 한국학 연구센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필두로 1991년 3월에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고, 1991년 4월에는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단기 강좌는 학과 개설로 이어져 1991년 10월에는 몽골국립대학교의 국제관계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때 한국학과는 지역학으로서 한국학(Korean studies)을 교육하는 전공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교육하였다(성비락, 2005: 13). 1992년 9월에는 몽골 국립외국어대학에 한국학과가 설치되었고, 1995년에는 울란바타르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면서 몽골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지속해서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었고, 대학 외에도 3곳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었다. 특히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은 2007년 처음으로 개설된 제1호 세종학당으로서 세계 각국에 한국어

문서가 없으며, 대신에 교육을 둘러싼 법령과 정부 정책 그리고 관련 보고서에 근거하여 학년별 편제와 시수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취한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문서화된 교육 관련 법령과 정책 외에도 편제와 과목별 시수 등이 중심이 된 몽골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이러한 용법에 따라 III장에서는 몽골의 교육 제도와 관련 법령, 학년별 편제와 과목별 시수 등 본 연구에서 재개념화한 분석 대상으로서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표 1 몽골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sup>3</sup>

학교	학사	대학원	교양/어학원	세종학당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	○	○	○	
몽골국립교육대학교	○	○		
몽골인문대학교	○	○	○	
몽골국립대학교	○	○	○	○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	○	○	○
후레정보통신기술대학교	○			○
울란바타르국립대학교	○			
몽골생명과학대학교	○			
울란바타르에르템대학교	○		○	
에르트렝게르대학교	○		○	
다르항대학교			○	
몽골국립국방대학교			○	
몽골국제대학교			○	
세를렉대학교			○	
시티대학교			○	
어르헝대학교			○	
엔흐어르칠렝대학교			○	
이흐몽골대학교			○	
이흐자삭국제대학교			○	
한몽기술대학교			○	
항가이대학교			○	
합계	10	5	17	3

와 한국 문화 보급의 전초기지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설립한 세종학당의 상징적인 장소다. 이러한 교육 현황을 교육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논의한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과 세종학당의 교육 현황이라면 초·중·고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sup>3</sup> 몽골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국제교류재단의 '해외대학한국학현황 통합검색', 세종학당재단의 '세계 곳곳 세종학당', 외교부의 외교 간행물 '몽골 개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표 2 한국어 과목 개설 초·중·고등학교 현황(김호정 외, 2020: 58)

	학교명	개설 시기	과목의 성격	한국어반	
				학급	학생(명)
1	23번 학교	1992	정규교과	9	463
2	18번 학교	2007	정규교과	10	230
3	명계니 종합학교(108번)	1995	정규교과	12	130
4	울란바타르초중고등학교	2004	정규교과	17	700
5	후레톨가 학교	2009	특별활동 <sup>4</sup>	19	380
6	게렐트 이레뒤 종합학교	1997	정규교과	8	150
7	이흐자삭학교	2010	특별활동	14	110
8	보양트오하(7번)종합학교	2015	정규교과	8	308
9	34번 학교	2015	정규교과	8	206
10	세트겜즈 종합학교	2015	특별활동	6	100
11	허스-오양가 학교	2007	정규교과	4	93
12	58번 학교	2015	특별활동	11	80
13	몽골-어요 학교	2013	정규교과	7	90
14	118번 학교	2016	정규교과	6	204
15	111번 학교	2016	특별활동	2	60
16	어드 종합학교	2016	특별활동	4	110
17	어르형 종합학교	2016	특별활동	4	170
18	바론오르트군 2번 학교	2016	특별활동	3	80
19	암갈랑 종합학교	2017	특별활동	9	210
20	67번 학교	2017	특별활동	20	80
21	47번 학교	2017	특별활동	3	70
22	52번 학교	2017	특별활동	1	40
23	Mongolia Korean Polytechnical College	2002	정규교과	3	53
24	노밍요스 종합학교	2013	특별활동	2	40
총 24개 학교				190	4,157

<sup>4</sup> 정규 과목이 아니며 방과 후 특별활동 중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교육 형식이며 수업 시수 도 주당 1시간 등으로 적은 편이다.

기준으로 몽골에는 총 820개의 초·중등교육기관이 있으며 그중 80%(656개)가 국립학교이고, 20%(164개)가 사립학교다. 몽골에서의 사립학교의 특성은 주로 외국어나 기타 특별한 영역을 특성화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특성화하여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몽골의 초·중·고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과 달리 초·중·고가 분리되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종합학교 형식으로 함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 활동을 하는 820개의 학교 중 독립적으로 구성된 초등학교는 78개(9.5%)이고, 중학교 113개(13.8%)다. 이 외에 나머지 학교는 모두 종합학교의 형식이다. 전체 초·중·고 기관 중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24개다. 24개의 학교는 다시 정규 과정 내에서 선택 외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비정규 과정으로 수업 후에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몽골 초·중·고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총 24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24개의 학교 중 한국어교육이 정규 과정으로 인정되는 학교는 11개이며, 비정규 교과, 즉 특별활동으로 개설되는 학교는 13개의 학교이고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 수는 4,157명이다. 정규 과정으로 개설된 11개의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일찍부터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진 학교다. 이러한 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커서 다양한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이거나 외국어 교육을 특성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별활동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고에서는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방과 후에 주당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을 통해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진다.

### III.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 체계 분석

몽골은 국가 주도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진다. ‘몽골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국회의 2015년 12호 결정문인 ‘2014~2024 국가교육정책’과 몽골 내각의 2010년 결정문의 첨부서인 ‘2010~2021 국가교육사업’을

기준으로 학교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몽골의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이해하고, 그것이 외국어 교육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의 체계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부의 명령과 문서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몽골교육문화과학스포츠부령’ 분석

‘2019 몽골 교육 기본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초·중·고 교육 발전 과정은 1990년 이후 다음의 3가지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 정책과 전략 등을 정의하여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시기이며 공공 교육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된 시기(1995~2004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등을 정리하여, 학생 개인의 발달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지속가능발전 방안-10’ 국가사업을 통한 공공 교육 강화를 위한 시기(2005~2015년)이다. 세 번째, 즉 현재 진행 중인 단계는 세계적인 목표인 ‘지속가능목표(UN-SDGs) 4의 교육 2030’ 사업에 따른 몽골 국가교육발전전략계획의 일부로 초·중등교육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한 목표 실행을 위한 형태로 전환한 단계다.

현재 몽골 교육에서 준수하고 시행하는 교육정책 및 사업은 ‘2014~2024 국가 교육정책’과 ‘2010~2021 국가교육사업’이다. ‘2010~2021 국가교육사업’<sup>5</sup>은 ‘몽골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기반한 국가 종합 발전 종합 정책’(2008)<sup>6</sup>을 기반으로 몽골의 포괄적인 국가 개발 정책으로 제시된 각종 사업의 수정 및 보완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제시된 몽골 밀레니엄 개발 목표 중 교육에 대해서 공공 교육을 사회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능한 인적 자원의 함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sup>5</sup> 몽골정부 2010년 결의안 부록 31호(<https://www.legalinfo.mn/annex/showPrint/2599>, 검색일: 2020. 9. 25).

<sup>6</sup> 몽골국회 2008년 12월 결의안 부록(<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3282?lawid=7045>, 검색일: 2020. 9. 25).

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맞는 지속적인 개발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교육 시스템을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2014~2024 국가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경제, 과학 및 기술 발달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국가의 독립성과 안보의 보장이므로 교육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한다고 하였다. 이 정책에 반영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등교육은 12년제로 구성되며 초·중등교육의 연속성과 관계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계와 구조를 따르도록 한다.
-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의 기본 습득 과정과 연관성 있게 진행되며 초·중등교육에서의 기본 외국어는 영어다.
- 유아 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표준 및 통합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제시하며, 또한 교육의 질과 성과를 평가한다.
- 각 학생의 재능, 능력 및 관심사를 고려하여 중등교육 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표준을 초과한 내용을 교수·학습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국가 교육 정책과 국가 교육 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된 ‘2019 초·중등교육통합교육과정’이 현재 몽골 초·중등교육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교과목 제시 및 시행 등은 몽골초·중등교육법에 따른 ‘2014~2024 국가교육정책’, ‘2010~2021 국가교육사업’ 등을 기준으로 국가 초·중등교육통합 교육과정을 통해 기획 및 실행된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몽골의 단계별 교육 목적은 표 3과 같다.

몽골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교육의 주목적은 학생의 모국어 기초 실력 형성과 향후 창의적인 학습 방법의 길잡이 형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 교육은 일상적인 생활력과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형성과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중등 교육은 비교적 융통성 있고 선택의 기회 폭을 넓힌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기술과 정보 처리, 판단력과 결단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여 개인

표 3 몽골초중등교육법 단계별<sup>7</sup> 교육 목적

단계	교육 목적
초등 교육	초등 교육의 목적은 모국어의 기본 실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학습 방법을 익힌 몽골 어린이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기초 교육	기초교육의 목적은 삶에 대한 기초 능력과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민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중등 교육	중등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인 정보 기술, 의사 결정 능력 및 학습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의 의사 결정 능력 및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의 진로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정보, 특히 국제 수준의 기술의 습득과 과학 지식 습득에 있어서 외국어가 정보 접근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몽골은 2019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몽골 정부법 제24조 제24.2항, 초·중고등교육법 제7조 제7.3항, 몽골어법 제13조 제13.1.1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2019~2020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은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반포하는 국가 표준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업 시수와 편제가 결정된다. 몽골의 전체 학제는 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3년으로 전체 12학년으로 이루어지며, 중등까지 9년은 의무 교육이다. 이러한 편제하에서 이루어진 개정된 몽골교육문화과학스포츠부령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과정의 영역별, 학년별 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초등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몽골 교육과정의 특성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대상으로 준비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처음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을

<sup>7</sup> 몽골의 교육 편제에서 기초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단계이고, 중등교육은 고등학교 단계다.

표 4 몽골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과목	학년					총 시간
	I	II	III	IV	V	
준비 과정 프로그램	60					60
몽골어	192	224	224	224	224	1,088
주민 도덕 교육	64	64	64	64	64	320
수학	112	160	160	160	160	752
인간과 환경	64	64	64			192
인간과 자연		32		64	64	128
인간과 사회		64		96		
미술과 기술	58	64	64	64	64	314
음악	58	64	64	64	32	282
체육	58	64	64	64	64	314
보건 교육				32	32	64
영어					96	96
합계	666	704	704	768	864	3,706

것이다. 다음으로 중등 교육과정 체계다.

몽골의 중학교 교육과정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제2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이다(표 5).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된 제1외국어로서 영어와 더불어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부서는 제2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편제를 통해 영어와 러시아어가 몽골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두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중등교육에서 외국어로 러시아어가 채택된 것은 몽골과 러시아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1911년에 설립된 몽골 신정부는 국립학교를 설립하여 유럽 교육 모델을 몽골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1921년 이후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으로 몽골이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몽골의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따르게 되었다. 이후 소련의 교육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고 교육 목적, 교육 내용 역시 소련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중학교 일부 교과서는 소련의 교과서를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

표 5 몽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과목	학년					총 시간
	VI	VII	VIII	IX		
몽골어와 전통 몽골 글자	몽골어	99	66	66	66	297
	몽골 전통글자	66	66	66	66	264
	문학	66	66	66	66	264
수학		165	132	132	132	561
정보 기술		33	33	33	33	132
자연 과학	물리학	33	66	66	66	231
	생물학	33	66	66	66	231
	화학	33	66	66	66	231
사회 과학	주민 도덕교육	66	66	66	66	264
	지리		33	33	33	99
	역사	33	66	66	66	231
	사회		33	33	33	99
예술	미술	33	33	33		99
	음악	33	33	33	33	132
디자인 기술	그림	66	66	66	66	264
	기술					
체육 및 보건	체육	66	66	66	66	264
	보건 교육	33	33	33	33	132
외국어	영어	99	99	99	99	396
	러시아어		66	66	99	231
합계		957	1,155	1,155	1,155	4,422

였다(Bayagaa, 2016: 49).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몽골이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면서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역사적인 관계 외에도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러시아어는 여전히 몽골의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어는 중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더불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표 6과 같다.

몽골의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달리 필수 과목 외에 선택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표 6 몽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과목	학년			총 시간
	X	XI	XII	
필수 과목				
몽골어	33	33	33	99
몽골 전통 글자	66	66	66	198
문학	33	33	33	99
주민 도덕 교육	66	66	66	198
수학	99	99	99	297
정보 기술	33	33	33	99
물리학	66	66		132
화학	66	66		132
생물학	66	66		132
몽골역사	33	33		66
사회학	66	66		132
지리학	66	66		132
영어/러시아어	99	99		99
체육	66	66	66	198
보건 교육	33	33	33	99
디자인/미술, 기술	66	66	66	198
합계	957	957	594	2,508
선택과목				
몽골어와 전통 글자	198	231	594	1,023
문학				
영어				
러시아어				
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디자인, 미술				
기술 공예				
교사 조정 시간				

필수 과목으로만 이루어지고, 필수 과목은 국가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며, 전문 분야별로 학교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선택 과목으로는 몽골어와 외국어, 수학 등의 다양한 과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택 과목의 결정과 실제적인 교육의 시행은 각급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

## 2. 몽골의 외국어 교육과정 분석

지금까지 확인한 국가 교육과정의 편제와 법령의 내용이 교육과정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번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외국어 교육과정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가 표준 교육 과정에 근거한 정규 외국어 교과목은 영어와 러시아어다. 공식적인 제1외국어<sup>8</sup>는 영어이고, 제2외국어는 러시아어다. 1990년대까지 제1외국어는 러시아어였으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인해 사회 제도가 바뀌어 국제적인 교육 제도에 발을 맞추고자 하는 국가적인 정책도 교육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영어가 제1외국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국가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필수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수 영어 교육은 5학년(초등학교), 러시아어 교육은 7학년(중학교)부터 시작하는데 필수 교과 이외에 추가로 선택 교과를 통해서 심화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와 러시아어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따르도록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영어와 러시아어만을 특성화시켜서 모든 과목을 해당 언어로 진행(몰입식 교육)하는 국립과 사립 특수화학교 수도 적지 않다. 국가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제1외국어인 영어와 제2외국어인 러시아어인 만큼 이에 대한 교육과정은 전국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향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 외국어 교육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사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에 2019년

<sup>8</sup> 2014-2024 국가교육정책 4장 1절에 따르면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의 기본 습득 과정과 연관시켜 진행하며 초·중등교육에서의 기본 외국어는 영어다.”라고 지정되어 있다.

표 7 국가교육과정상 학년별 외국어 교과목 배정 시간<sup>9)</sup>

교육과정 수준	초등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				고등 교육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영어					96	99	99	99	99	99	99	99
러시아어							66	66	99			
합계					96	99	165	165	198	99	99	99

※ 추가 설명: 고등학교 10-12학년 학생은 외국어 과목 중 영어나 러시아어 하나는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기준으로 진행 중인 국가 초·중등교육통합교육과정 외국어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세계적으로 각각 따르고 있는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 및 기술되었다. 비록 국가 초중등교육과정으로서의 영어와 러시아어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과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세계적 수준의 교육 제공의 기회라는 폭넓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계에서 통하는 언어인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및 수요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초중등교육통합교육과정은 '2008 국가영어교육사업'에 따라 설계 및 운용되고 있다. 본 통합교육과정 영어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 목표는 CEFR Low A1 기준이고, 중등학교 6~7학년은 Low A1~Mid A1, 8~9학년은 High A1~Low A2이고, 고등학교 10~12학년 필수 영어 교육과정은 Mid A2~Low B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영어 선택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필수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장하여 창의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앞서 언급한 사회 제도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대신에 제3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 이외의 외국어를 교육하는 학교가 생겨났다.

<sup>9)</sup> 몽골교육문화과학스포츠투부령 A/491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1시간 수업 진행 기간은 35분, 3~12학년까지 40분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80분으로 조정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진행 시간을 35~4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제3외국어는 국가통합교육과정을 통해 필수 교수·학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여러 나라 언어가 교수·학습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널리 교수·학습되는 외국어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sup>10</sup>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교육정책상 공식 외국어로는 영어와 러시아어가 적용되어 있고, 또한 대학 입학시험도 영어와 러시아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3외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범위는 넓지 않다. 제3외국어에 대한 교육 시간은 국가 공식 외국어인 영어와 러시아어에 대한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배정되는 시간은 매우 적다.

#### IV. ‘23번 학교’ 한국어교육의 실제<sup>11</sup>

몽골의 교육문화과학스포츠통합부령에 근거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서 외국어를 학교장의 권한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몽골의 외국어 교육 몰입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23번 학교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몽골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 기관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형태에 따라 일반 학교, 특성화 학교, 심화 학교, 특수 학교, 국제 학교의 5가지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심화 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 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심화

<sup>10</sup> 외국어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9몽골교육기본정보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sup>11</sup> III장에서는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서 정부 주도의 교육 관련 문서와 프로그램으로서의 편제, 시수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IV장에서 논의할 23번 학교의 한국어교육 실체는 앞서 검토한 내용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몽골의 한국어교육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에서 구체화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학습 시기와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구성이다.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개별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다양성이 몽골의 한국어교육의 실제 모습이다. 따라서 분석의 층위가 다르더라도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3번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구체적인 현황과 교육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8 23번 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학년별 편제

시간 \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당 시수	0			5					4			

학교는 국가통합교육과정의 내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심화해서 교수·학습하는 교육이다. 심화 학교의 하나로서 23번 학교는 외국어 심화 학교이며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뿐만 아니라 제3외국어를 심화 교육하는 곳이다. 23번 학교는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학교로서 1970년부터 러시아어 특성화 학교로 외국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사회제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심화학교 형태로 바뀌었고, 그중 하나로 한국어교육을 시작하였다. 1992년 처음으로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초·중·고에서 수행된 몽골 최초의 한국어 정규 과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급은 9학급이며 학생 수는 463명이다. 정규 과정으로 운영되는 23번 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편제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23번 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어보다 먼저 한국어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몽골의 외국어 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23번 학교의 한국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시작된다. 이는 23번 학교처럼 정규 과정으로서 한국어반이 존재하는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23번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모든 학생이 특정 외국어를 선택하고, 선택한 외국어에 따라 영어반, 러시아어반, 한국어반, 독일어반, 일본어반, 중국어반의 6개로 구성된다. 이러한 학급 구성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외국어를 3학년부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따라서 한국어반 학생들은 국가에서 정한 제1외국어로서 영어와 제2외국어로써 러시아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기 시작한다. 둘째, 국내의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몽골의 국가교육 정책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모국어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 시기로 본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모국어인 몽골어 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외국인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3학년부부터 한국어교육이 시작된다. 세 번

째 특징은 저학년 때 한국어교육 시간을 주 5시간으로 배정하다가 고학년에 올라가면 주당 시수가 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시수 변화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과목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교과를 배워야 하므로 외국어 교과인 한국어의 비중이 작아지고 시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23번 학교의 한국어 과정은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체계 하에서 외국어 전문학교로서 학교의 특수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23번 학교에는 전체 4명의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중 3명은 몽골인 교사이고, 1명은 한국인 원어민 교사이다. 4명의 교사가 9학급 463명(2019년 7월 기준)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앞서 확인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23번 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표준 한국어’ 교재를 사용한다. 표준 한국어는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한국과 몽골의 교수진과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교재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으로 제작되었으며, 기본 교재 외에도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전문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게 만들어진 교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재 집필진은 한국과 몽골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몽골 내 스마트 교실에서 초·중·등 학습자가 사용한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교재와 함께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등이 개발되었으며 이들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몽골초·중등학교 통합한국어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본 이유는 한국어교육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 과정, 평가라는 교육과정의 전체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 만들어진 교재를 토대로 ‘몽골한국어교사협회의’ 한국어 교사들의 참여로 각 과목의 수업계획안 작성, 수업 자료로 쓸 수 있는 PPT 개발, 문형 관련 동영상 제작, 단원별 평가 자료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스마트 교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들 자료를 전체 학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재는 2019학년도부터 스마트 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도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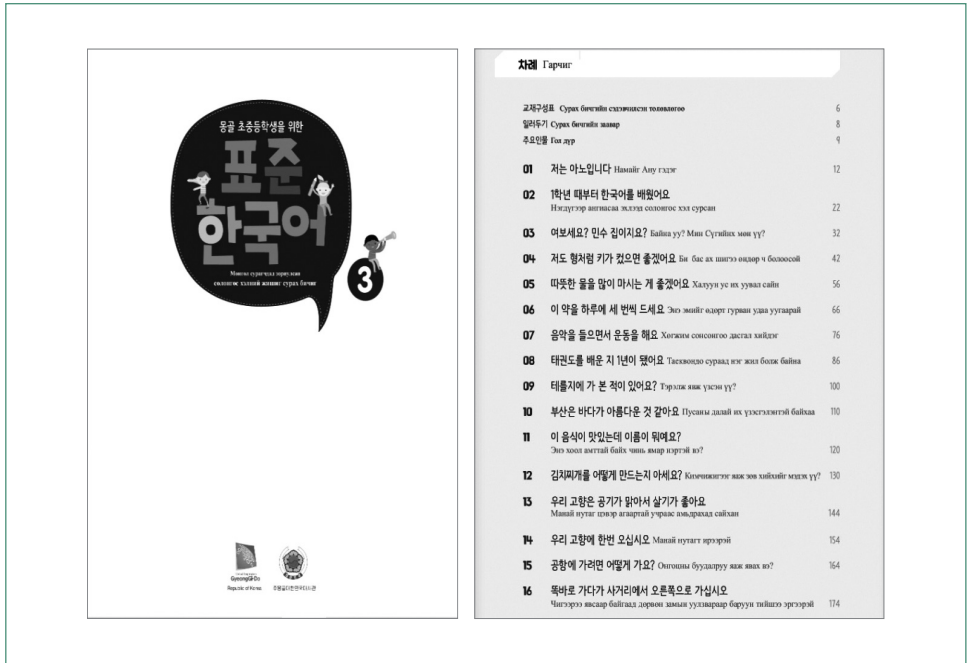


그림 1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3'의 표지 및 목차

수·학습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교재 구성은 몽골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방침에 맞춰 중학교 5학년부턴 고등학교 12학년까지 8년 동안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6권이며 각 교재는 본 교재와 익힘책,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 음성파일을 포함한 PDF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사용 지침서는 교재의 집필 원리부터 시작해서 학습 목표, 구성 체계, 단원 구성, 각 단원에 대한 지도 방법 등으로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특히 몽골의 초·중등학교 학기에 맞춰 1년 33~35주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익힘책은 기본 교재 내용을 복습하고 학습자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밖에도 교사들을 위한 각 권별 교사용 지침서 8권도 함께 발행되었다. 그동안 몽골 초·중등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었기에 교사용 지침서 내 각 단원 및 과별 지도법은 교육과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표준 한국어의 교재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 V. 몽골의 초·중·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몽골의 국가 교육과정 중 외국어 교육과정의 체계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23번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확립

몽골에서의 초·중·고의 학제는 12년제이고, 외국어 교육은 이러한 학제에 따라 영어는 5학년, 러시아어는 7학년에 시작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편제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과정 역시 12학년제의 편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과정의 출발 수준과 종료 수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제3외국어의 대한 국가통합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하는 학교마다 교육의 시작점과 출발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수에 따른 기준을 교육의 목표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한국어능력 시험 합격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결국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적하에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몽골의 교육 제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먼저 몽골의 12학년제를 따라 언제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출발점을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외국어인 영어와 러시아어 교육이 각각 5학년과 7학년에 시작한다. 그러나 23번 학교의 경우 이보다 더 빠른 3학년부터 한국어교육이 시작된다. 한국어 학급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1외국어로서 위상을 갖는 영어와 러시아어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배우는 것은 국가 주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 체계다. 따라서 5학년 혹은 6학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외

국어 교육과정의 편제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년별 성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을 활용하여 초등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Low A1, 중등학교 6~7학년은 Low A1~Mid A1, 8~9학년은 High A1~Low A2이다. 고등학교 10~12학년은 필수 영어 교육과정의 경우 Mid A2~Low B1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등급 기준을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은 CEFR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단계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성취 기준을 제시한다면 CEFR 체계라는 교육과정의 큰 틀에 부합하면서 한국어라는 고유한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구현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

몽골의 한국어 교사는 영어 교사와 러시아어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국가에서 개발한 외국어 교육과정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두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각급 학교에서 설계한 교수요목을 근거로 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활동과 평가까지 교사 주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교육 내용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자, 교재의 운전자이자 평가자로서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사는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기는 하였지만 내용학으로서 한국어 통·번역을 전공했거나,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을 전공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인 원어민 교사 역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파견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혹은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중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전문성에 근거하여 채용된 경우가 많다. 결국 몽골의 한국어 교사는 교육 내용으로서 한국어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을지 몰라도,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교육학의 여러 이론과 지식, 구체적인 교수·학습 장면에 대한 이해와 교재 개발, 평가 등의 교육학적인 역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3번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4명의 한국어 교사 역시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따라서 몽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교실 사업의 교사 연수’는 매우 시의적절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수행한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는 현지인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행하는 이 교육은 한국어 내용 지식 외에도 교사 전문성, 평가 도구의 활용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연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몽골인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몽골 한국어교사협회’와 국내의 한국어교육 단체 사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단체에 소속된 현지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한국어교육 전문 학회나 기관이 해외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한국어 보급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확대

몽골에서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된 세종학당 설치 사업에서 제1호 세종학당으로 울란바토르 세종학당이 설치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ODA 사업은 단순한 교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 교실에서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양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이때 한국어 교육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한국어’ 교재까지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을 위한 제반 환경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몽골의 초·중·고 한국어교육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초·중·고 한국어교육 보급 및 확대를 위해서는 몽골의 사례를 근거로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이 주로 한국어교육 전문 기관과 지자체에서 이루어졌을 뿐, 교육부 차원의 협력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원과 같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설치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원의 주요 임무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및 한국어 강좌 운영이지만, 최근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일반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유치 및 한인 유학생 관리 지원’, ‘해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학교의 국내 학교 교류사업 운영 지원’ 등을 한국교육원의 업무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몽골에 한국교육원이 생긴다면 이미 운영 중인 많은 수의 초·중·고 한국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육원이 교육부 산하 기관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협력이 지속된다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게 기업 차원의 시설 지원 혹은 한국어 교육기관 차원에서 한국어 교재 보급 등의 개별 협력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한국어 보급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는 주로 대학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때 초·중·고의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과목의 채택과 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의 국가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한국어 보급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가 수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김지혜·김호정, 2019; 김지혜·박안토니아,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몽골 정부와 교육부의 각종 명령서, 몽골 초중등교육통합교육과정, 각종 행정기관 보고서를 검토하고, 23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의 구

체적인 실천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의 지평을 대학에서 초·중·고로 확장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어의 비중이 커 가는 상황에서 몽골의 사례는 앞으로 후속 국가의 연구를 추동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보급의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세종학당, 대학의 학과 개설과 더불어 초·중·고에서 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의 채택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어 보급 정책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투고일: 2020년 10월 14일 | 심사일: 2020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3일

## 참고문헌

- 간투머 간치맥. 2018. “몽골과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비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남옥. 201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처·여격 조사 사용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제21집 3호, 1-21.
- 강신. 2007.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몽골학』 22, 147-168.
- 권성훈. 2009.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53, 71-96.
- 김기성. 2015. “몽골의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제도와 학위제도를 중심으로.” 『몽골학』 41, 233-264.
- 김명광. 2008.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일고찰: 목적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8, 29-49.
- 김명권. 2011. “몽골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그 발전 방향 제언.” 『한어문교육』 25, 451-477.
- 김승희. 2012.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 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부재울·소경희·양길석. 2010. 『예비, 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

출: 교육과학사.

- 김지혜·김호정. 2019. “베트남 중등 외국어교육 정책과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5(4), 745-770.
- 김지혜·박안토니나. 2020. “우크라이나의 초·중등 외국어교육 정책과 한국어교육과정의 과제.” 『국제어문』 84, 407-436.
- 김호정·정연희·김가람·키릴·안혜인. 2020. “신북방 대상 국가의 외국어교육 정책과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운영 현황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교육부 재의 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2019-05).
- 남수정. 201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중간언어 연구: 격조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벌러러. 2017.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 ‘이/가’, ‘은/는’, ‘을/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비락. 2005.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비락. 2009. “몽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황 및 발전 방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12, 7-31.
- 앵크체첵·김영란. 2017. “몽골의 통·번역 전공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몽골립과학기술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3, 143-180.
- 최기호. 2007.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문법 교육』 6, 187-210.
- 최명선. 2013.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인문과학연구』 20, 145-167.
- Amarjargal. 2011.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격조사 비교 및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tsaikhan, Munkhtsetseg. 2013. “한국어 격조사와 몽골어 격어미의 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yagaa Ariunbaatar. 2016. “몽골 국가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국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Enkhbold, Enkhtur. 2014. “한국어와 몽골어의 주격조사와 호격조사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Tungalag Orkhontuul. 2020.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분석 연구: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웹 사이트

-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제작, ‘몽골 최초 표준한국어 교재’ 본격 사용.” 2019년 5월 15일.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0577](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0577)(검색일: 2020. 9. 20)
- 2019 국가교육기본정보보고서: <http://www.mier.mn/report-2>(검색일: 2020. 9. 21)
- 2019국가초등교육통합교육과정: <http://www.mier.mn/wp-content/uploads/2019/09/%D0%91%D0%90%D0%93%D0%90.pdf>(검색일: 2020. 9. 21)
- 2019국가중등교육통합교육과정: <http://www.mier.mn/wp-content/uploads/2019/09/%D0%A1%D0%A3%D0%A3%D0%A0%D0%AC.pdf>(검색일: 2020. 9. 21)
- 2019국가고등교육통합교육과정: <http://www.mier.mn/%D0%B1%D2%AF%D1%80%D1%8D%D0%BD-%D0%B4%D1%83%D0%BD%D0%B4>(검색일: 2020. 9. 21)
- 국가교육정책 2014-2024: <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6661?lawid=10935>  
(검색일: 2020. 9. 24)
- 몽골교육법: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9020>(검색일: 2020. 9. 21)
- 몽골국회 2008년 12월 결의안 부록: <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3282?lawid=7045>(검색일: 2020. 9. 25)
- 몽골정부 2010년 결의안 부록 31호: <https://www.legalinfo.mn/annex/showPrint/2599>  
(검색일: 2020. 9. 25)
- 몽골초중등교육법: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72?lawid=72>(검색일: 2020. 9. 21)

## Abstract

##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in Mongolia's Education System: The 23<sup>rd</sup> School

Batbyamba Altai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Garam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by reviewing Mongolia's national curriculum, maj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ducation, and to analyze the practice cas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23rd School. According to Mongolia's foreign language curriculum, the first foreign language is English, and the second is Russian. English education begins in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Russian begins in the seventh grade. Recently,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also actively occurring in Mongolia as a social demand for a third foreign language. 4,157 learners from 24 schools are studying Korean. Among them, the 23rd School is the first foreign language specialized school in Mongolia, where 463 students from nine classes are still learning Korean. Korean language education begins in third grade, faster than English educa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four Korean language teachers instruct students. The textbook used at this time is 'Standard Korean,' a customized textbook for Mongolian learners. Mongolia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national curriculum, and should enhance the expertis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promot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he school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munity.

**Key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ongolia, National Curriculum, Teacher Expertise, Education Cooperation